

## 나주혁신도시 생활여건 개선 막막

교육·교통·문화 등 이전 지원과제 64개중 36개 현실성 없거나 미완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이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이전 기관 임직원의 이 지역 이주를 늘리기 위해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내걸었던 지원대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가족의 '나주 이주'가 필수적인데, 이주 직원 자녀 공부원 채움 등 일부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부 이전 기관들이 부동산 매각 등의 핑계를 대며 이전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 등이 내걸었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주에 터를 잡는 임직원 가족도 더욱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 이전 기관과 이주 임직원을 위해 64개 항목의 '이전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중 28개만 완료되고 36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지원계획'은 이전 기관들의 요구와 전남도, 나주시의 자체 분석을 통해 더욱 많은 임직원을 나주 등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 등 이전비용 지원 ▲교육여건 조성 ▲병원 설립 등 의료·복지여건 조성 ▲혁신도시 내 '명예의 전당' 설립 등 문화·예술여건 조성 ▲골프장 건설 등 생활체육·여가활동 여건 조성 ▲광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등 대중교통 여건 지원 ▲상·하수도 감면 등 기타 정주 여건 지원 등이다.

대도시에 비해 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나주로 이주해 오는 가족을 위해 생활·교육·문화·체육·교통 등을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교육, 문화시설은 대도시 생활에 걸맞은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남도 등이 앞다퉀 관련 시설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지원계획' 중 절반 이상인 36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과 법적인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실제 1조152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은 정부의 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원 약속이다.

또 '이주 임직원 자녀의 나주시 공부원 특별채움' 약속도 '편법 특채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직원 자녀의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통합 학군제 도입' 등도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나주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미완료된 36개 과제 추진 상황 등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용준 인수위원장,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첫 회동을 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인수위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교육감 선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부족해진 데다 일반행정과 교육 업무가 분리돼

## “지방세 비율 30% 이상으로 늘려야” “지방이 잘 할 일은 지방에 맡기겠다”

단체장과 교육감의 업무 협력과 재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러닝메이트제 등을 포함해 교육감 선임방식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국비비율을 50%에서 70%로 조속히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취득세감소분을 연내에 전액 보전하는 한편 자치경찰이 교통·생활안전·치안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앞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지방주도의 지방분권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역할 분담분을 재확인했다.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가) 글로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방과 함께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며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강은태 광주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비롯해 박 당선인이 광주에 약속했던 7대 공약과 함께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등 현안과제 7건에 대해 설명하고, 새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F1대회 정부 지원 ▲KTX 광주~목포 노선 단일화 ▲호남인사 탕령 등용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등 7대 과제의 실현을 적극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 15일(금)  
062)605-1112  
062)605-1023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300 Elegance, E300 Avantgarde Sports Package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주 임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내걸었던 대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9월 임주를 목표로 6일 현재 1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전 KDN 보사 신축 현장.

/나주=김진수기자 jeans@

## 朴당선인-여야 대표 북핵 긴급회동

오늘, 북 핵실험 위기 대책 등 초당적 논의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대응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 긴급회동이 7일 오후 열렸다. 박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북한 핵실험 위기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은 박 당선인이 6일 오전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책 차원에서 여야간 긴급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당 이이철 수총재가 이에 응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박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박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핵 실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때에 박 당선인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며 "큰 틀에서 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위기 의식 속에 통일부는 이날 김수일 위기대응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통일부 정책실과 정세분석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교류협력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북한 3차 핵실험 대비 '초기대응반'을 가동했다.

한편,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과 관련, "완전한 수소폭탄이라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부스티드 웨폰'(증폭핵분열탄)이라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mara.kjmedia.co.kr

###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3. 3. 1 | 금 | 08:30~16:00

플코스 08:30 | 하프코스 08:40 |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10km 09:10 | 5km 걷기코스 09:20 |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대회개요**

- 코스 (출발지2원화)
  - 플, 하프코스: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출발 → 승촌보 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10km, 5km: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 만호초교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종 목: 5km걷기, 10km, 하프코스, 플코스

**신청 및 접수**

- 참가자격: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 2013년 2월 7일(목)
- 참가비: 플·하프: 10km: 25,000원, 5km: 10,000원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수: http://mara.kjmedia.co.kr (2) 신청서 FAX접수: 062-222-0195 (3) 방문접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주요운영내**

- 참가자지급품: 배번(10km코스이상 참가자 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10km코스 이상 완주자), 간식 및 음료, 참가 기념품
- 개인시상: 플·하프: 10km 1~45위 까지 시상 (총시상금 594만원, 총시상품 1,500만원 상당)
- 특별상: 원양부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 단체참가 특전: 단체참가팀 지원금 지급 및 특전(상세내역 홈페이지 참조)
- 원거리 참가자 셔틀버스운영

| 주 최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 문 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